

‘2021 Eurasia Packaging Istanbul’ Report

‘2021 터키 이스탄불 포장전시회’ 참관기

김시범 / (주)서일 기술연구소 과장

(사)한국포장협회(회장 임경호)가 ‘2021 터키 이스탄불 포장전시회(Eurasia Packaging Istanbul)’에 참가해 한국관을 운영했다.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터키 이스탄불 Tuyap Istanbul Fair Convention and Congress Center에서 열린 이번 전시회에는 포장제품, 포장재료, 포장산업을 위한 서비스, 포장디자인서비스, 종이 및 판지 포장 관련 제품 및 기술, 컨버팅기술, 포장기계 및 장비, 포장 재활용기술, 물류서비스 등이 소개됐다. 한국포장협회는 7개사, 7개 부스 규모로 한국관을 마련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포장 기술 및 포장재를 유럽시장에 선보였다.

이번 전시회의 한국관 구성에 참여한 (주)서일의 김시범 과장이 ‘2021 터키 이스탄불 포장전시회(Eurasia Packaging Istanbul)’의 참관기를 작성해주었다. 참관기를 통해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김 과장에게 지면을 빌어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 편집자 주 -

철저한 방역 관리로 안전한 전시 참가

터키 이스탄불 포장전시회(Eurasia Packaging Istanbul)는 1994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포장전문 전시회로, 이번 전시회는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터키 이스탄불에 위치한 Istanbul Tuyap 전시장에서 개최되었다.

‘2021 터키 이스탄불 포장전시회(Eurasia Packaging Istanbul)’에는 식품 포장과 포장기계 등 포장 관련 업체가 많이 참여했으며, 공업용 화학제품, 잉크, 제품 라벨, 인쇄 등의 업체도 다수 참여하였다. 이번 전시회에는 1,229개사가 참가하였으며, 한국관은 국내사 6개사, (사)한국포장협회가 참여를 했다.

‘2021 터키 이스탄불 포장전시회(Eurasia Packaging Istanbul)’의 한국관 참가 운영에는 한국포장협회의 체계적인 행사 일정 관리와 많은 전시회 참여 경험을 바탕으로 심각한 코로나 상황에서도 철저한 방역 관리로 큰 문제없이 잘 마무리가 되었다. 또한 KOTRA의 기업 매칭과 사전 시장 조사가 많은 도움이 되었다.

바이어 상담 활발히 이뤄져

터키의 포장재 시장 규모는 2020년 250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이중 38%가 플라스틱, 필름



▲ '2021 터키 이스탄불 포장전시회(Eurasia Packaging Istanbul)'의 한국관 모습



▲ 2021 터키 이스탄불 포장전시회(Eurasia Packaging Istanbul)'에서 만난 바이어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부분으로 형성되어 있다. 터키는 제조업이 주변 국가보다 많이 발달되어 있으며, 현재 포장재 부분에서는 대부분 공급 과잉이며, 신규 진입이 용이하지 않는 것으로 전달받았다.

포장 전시회는 여러 섹션으로 구분이 잘 되어 있어서 바이어가 찾고자 하는 업체를 손쉽게 찾을 수 있게 되어 있었다. 관람객도 매우 많았으며, 포장 관련 기업들이 많이 참여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매우 활기찬 분위기였다.

전시회 첫날부터 매우 바쁘게 많은 바이어들과 미팅을 진행하였으며, KOTRA 및

한국포장협회에서 지원한 통역관을 통하여 의사소통에 문제없이 모든 미팅을 끝냈다.

미팅 및 상담 결과, 약 60~70차례의 상담을 진행하였다. 그 가운데 10~15개 업체와는 관련 상품과 심도 있게 미팅이 진행되었으며, 현재 회사에 복귀하고도 메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유럽과 중동 바이어와의 만남


유럽과 중동 지역의 무역 교두보의 역할을 하는 터키에서의 전시회답게 유럽과 중동 지역의 바이어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고, 많은 상담이 이뤄졌다.

특히 유럽에서는 친환경 포장재료와 관련한 상담 문의가 많았으며, 중동지역은 가격 측면에서의 상담이 많았다.

그들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에 관심이 컸는데, 동일 또는 업그레이드된 제품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

현지 포장 제조업체 또한 규모가 큰 업체들이 많이 전시에 참여해 상담 중간 중간 관람 및 업체를 방문해 미팅을 진행하였다. 현지 포장 제조사들은 서일의 신규 프로젝트인 투명 배리어 필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다.

높은 품질 경쟁력 확인

이번 유라시아 포장전 참여로 유럽과 중동 지역의 포장재의 최신 동향을 파악하게 되었으며, 첫 해외 전시회 참가로 서일의 제품이 글로벌시장에서도 충분히 품질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더불어 서일의 AI 증착 필름과 투명 배리어 필름(AIOx) 제품의 수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 2021 터키 이스탄불 포장전시회(Eurasia Packaging Istanbul)에 참여한 현지 포장 제조사의 모습